

김종대(진영 대창초등학교 4학년 은사) 1차 구술

1. 구술자: 김종대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5월 27일
5. 구술장소: 서울 은평구 구술자 자택
6. 구술분량: 06분09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대선후보가 된 첫 제자와 46년만의 재회

면담자 : 그러면 사(4)학년 때 가르치고, 오(5)학년 때 조금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은 군대 가시고 대통령님은 중학교 가고 이랬으니까, 그 이후에 처음 대통령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건 언제쯤이신 거예요?

구술자 : 내가 그 안에 살고 나왔을 때,¹⁾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변호사 사무실] 옆을 지나가면서 들어갈라 하다가 일부러 안 들어갔다고. 얼굴도 함(한번) 보고 싶고 [하지만] 그래, 내가 자신을 조심했지. 그, 안 하고(들르지 않았고) 또 강남엔가 뭐 갈빗집인가 음식점을 했지 싶은데.

면담자 : 예예, 하로동선²⁾이라고.

구술자 : 하로[동선], 나는 모르겠고 거도(그것도) 한다고 내[가] 말은 듣고 있었거든. 그래도 거도(거기도) 한번 가서 뭔가 할라카다가(하려가다) 그때도 내 안 갔다, 일부러. 일부러 내 주위 친구들이 같이 가자하는 걸 내가 소위 옛날에 인혁당³⁾, 요새야 뭐 괜찮지마는 인혁당 하면 또 뭔가, 노무현 대통령 하는데 피해주면 안 되거든. 아, 국민학교⁴⁾ 뭐, 초등학교 은사라는 선생이

1) 구술자는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1982년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다.

2) 1997년 3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인사 몇몇과 서울 강남구에 개업한 한우고기 식당. 여름에 화로, 겨울에 부채라는 뜻을 가진 '하로동선'(夏爐冬扇)은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요긴하게 다시 쓰일 때를 기약하는 정치 야인들의 소망에서 붙인 이름이다.

3) 박정희정권에서 유신 전후인 1964년 8월, 1974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한 사건. 이른바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은 1975년 4월 9일 새벽, 대법원 판결 직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을 당했다. 인혁당 관련자들의 판결이 확정된 1975년 4월 8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했으며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역시 2005년 12월 7일 박정희정권이 조작한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참고

인혁당이다 뭐다 해뿔면(해버리면), [노무현도] 빨갱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내가 피했다고. 내가 사실 피했어. 그래 몰래, 자기 대통령 선거운동 하는데 내[가] 몰래, 연락 안 하면 나는 몰래 저 해주지(몰래 선거운동 해주지). 진영 내려가서 내 제자들, 저 친구들 만나가 운동도 시키[고], 저저 하라 하고(운동하라 하고) 이래 했지. 나는 어디 일을 해도 안 나타난다고. [그런데] 여럿이 나를 [부산에] 내려오라는 거지. 나는 인자 포 나게(표 나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딱 내려가니까 부산 역에서 내리면 왼쪽에 아리랑호텔이 있어요. 그 팔(8)층인가 거서(거기에서) 인자 교수들이 한 사백(400) 명 가까이 모였지.⁵⁾ 테이블에 이래가 쪽 앉아 있는데, 내가 대충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⁶⁾들이 내려와서 초등학교 은사가 안 나타나면 안 된다 캐서(해서) 내 할 수 없이 내려갔지. 내려가니까 마침 인자 노무현 대통령 유세하고 해서(유세하고 와서) 만났는데 참 반갑더만.

면담자 : 아, 그때 대통령님 유세 다니실 때.

구술자 : 그래 다니실 때.

면담자 : 그때 처음 대면을 한 거예요?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 : 사(4)학년 때 이후로.

구술자 : 이후로 [처음 본 거지]. [노무현 후보가] 나를 아는 기야(알아보는 기야). 그래 내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대학을 안 나오니까 인맥이 없다고, 내한테 그런 말을 살짝 하지. 그럼 옆에 기자들 또 들으면 곤란하거든. 요 옆에 앉아가지고, 귓속말이지. 그 외에는 뭐 이야기도 안 하고, [기침] 그 다음은 또 내 [기침] 어떻게 사느냐를 묻지. 내 건강에 대해서. 나 잘 있다 하고 그기지(그랬지). 그때 보니, 난 자신 있다고 봤거든. 내가 인자 사(4)월혁명회 [활동]하면서 우리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가 있다고. 사무실 같이 쓰면서 자기들 총회 할 때마다 내가 내빈으로 참석해주거든. 하면 뭐 한 오십(50) 명밖에 안모여. 오십(50)명도 안모여. 근데 [그날은] 수백 명이 모였거든. 아, 자신 있다고 했어. 전부 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그 교수들만

4) 초등학교의 이전 명칭. 일제 치하인 1941년부터 1996년까지 사용되었다.

5) 2002년 12월 6일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위한 부산-경남 교수모임'이 노무현 후보를 초청해 '지방분권과 지방대학 발전 방향'을 주제로 부산 아리랑호텔에서 연 간담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위한 부산지역 교수모임'은 같은 해 10월 29일 결성식을 갖고 130여 명이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6) 구술자가 속한 '4월혁명회' 회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는 1985년 4월혁명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모여 내려왔어. 그러니 뭐 경남대학, 부산에 있는 대학, 경남에 있는 창원 대학, 다 모였어. 그 지지하는 [자리에]. 아 그거 보고 내가 자신 있다 켜지 (했지). 내 그래서 노 대통령한테 '자신 있다, 자신 있어. 이리 많이 모였으니' 내 이랬다고.

면담자 : 아, 그때 그 부산 아리랑호텔에서.

구술자 : 아리랑호텔에서. 그래 내(가) 보니 옛날에 어릴 때는 얼굴이 창백했는데 [그때 보니] 창백 안 해. [웃음] 건강해. 사람이 다르더라고.

면담자 :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고 이래서 대통령님에 대해 조심하는 마음에서 아는 척을 잘 안 했다 말씀하시는데.

구술자 : 아, 내가 사실 거기라고(그거라고). 괜히 저기, 대통령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 그래 내 말조심을 어디 가도, 또 노무현이 대통령 된 시절에도 어디 가도 내 조심한다고. 그리 해주야(해줘야) 되거든. 절대 그 참, 대통령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인혁당 때문에, 이거 때문에 다 필히 내가 조심했다고. 저번에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 뭐야 경향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몇 군데서 왔어요, 동아일보도. 내 거절했다고, 마. 그래 한겨레 [신문은] 내가 또 그때 편집부장이 내(나)하고 같이, 교도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지 안 그러면 나 안 해준다. 괜히 해가지고 또 뒤에 가서 인혁당 해가지고 또 뭐 좌파니 이런 소리, 또 노무현이 보고 좌파라 하는데. 저기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 [할] 때다. 나도 직장에 [일이] 있어서, 내 일이 있어서 따라갔는데, 세 사람이야. 등산 처음에 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이는 빨갱이(빨갱이)다' 이랬어. 내가 그냥 놔주나. 등산하고 왔는데 [그 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젊은 거 같더라는. 내[가] 갔지, 전철 기다리면서. 딱 증거를 대봐라 했거든. '뭣이 어떻게 해서 노무현이가 빨갱이고(빨갱이고) 김대중이가 빨갱이(빨갱이)냐.' 그래가지고 인자 나는 거서(거기에서) 시비를 붙으려고 했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를 갖다 말려서 말았지만도. 그래 그렇게 못된 인간들이 있다고.

■ 구술자 주요이력

1936. 출생

1956. 부산사범학교 졸업, 경남 김해시 진영 대창초등학교 부임

1970. 교사직 사직

1974.04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974.07 징역 20년형 선고

1982.03 형집행정지로 석방

1985. 4월혁명회 회원 가입, 이후 사무국장 역임

1956년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진영 대창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첫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노무현이었다.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8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다시 만났다. 노 대통령도 알아봤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진영중학교 10년 선배이기도 하다.